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5.11.25

NOV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25	26	27	28	29

원/달러 환율

1,475.70원 (+0.10원)

KOSPI

3,846.06 (-7.20, -0.19%)

KOSDAQ

856.44(-7.51, -0.87%)

국고채 10년 금리

3.289(+0.018%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자동차	Back To The Fundamental [송선재]

Global Asset Strategy

New K-ETF	미국 우주항공 테크, 단기 특수은행채 액티브 [박승진]
글로벌 ETF Weekly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다시 쌓여갈 금리인하 명분 [박승진]
하나채권	[11월 금통위 프리뷰] 매파적 동결. 금리는 박스권 [박준우]

기업분석

포스코인터내셔널	인니 현지 팜 기업 인수로 밸류체인 강화 [유재선]

Weekly

건설	추가 공급대책 예고 [김승준]

글로벌리서치

미국 이슈 코멘트	AI 인프라 및 리쇼어링에대한 긍정적인 관점 지속 [강재구]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KB금융, NAVER, 삼양식품, S-Oil, 이수페타시스, 파라다이스, 세방전지, 에스피지

하나증권

2025년 11월 25일 | 산업분석

자동차

Back To The Fundamental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5년 11월 24일

현대차(005380)
BUY | TP 310,000원 | CP 257,500원

현대모비스(012330)
BUY | TP 380,000원 | CP 293,500원

현대글로비스(086280)
BUY | TP 210,000원 | CP 158,400원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강민아 minahkang@hanafn.com

관세 이슈가 종료된 자동차 업종을 어떻게 대응할까?

관세 이슈의 소멸 : 미국 자동차 관세율이 15%로 인하되면서 관련 비용이 4조원 이상 절감. 향후 현지 생산 확대와 가격 인상 등을 통해 관련 비용을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 지난 1년간 자동차 주가를 좌우했던 관세 이슈는 이미 실적 전망과 주가에 반영되었고, 관세율 확정으로 영향력은 소멸되었다는 판단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전망 : 2026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증가율은 2%로 낮아질 전망. 미국은 관세 및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로 1% 증가하고, 중국은 전기차 구매세 인상으로 증가율이 3%로 하락. 한국도 취득세 인상되면서 1%로 낮아질 전망. 반면, 유럽은 EV/HEV 위주로 2% 성장률이 유지되고, 인도는 GST 인하 및 신차 출시 효과 등으로 4%로 높아질 전망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변화 : 2026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12% 증가하면서 전체 자동차 시장 내 침투율이 2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유럽은 환경규제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10% 중반 증가. 중국은 정부 가이드라인 및 구매세 인상 등으로 증가율이 10%로 하락. 미국은 전기차 세액공제의 종료와 CAFÉ 규정의 완화, 관세 비용 등으로 정체될 전망. 미국의 전기차 정책 후퇴는 미국의 전기차 주도권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수출 확대 및 해외 공장 건설을 통해 유럽/아중동/동남아 등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중. 미국 외 지역에서 전기차 경쟁심화 및 가격인하를 촉발시키고 있는 것

하이브리드차의 성장 지속 :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시장은 미국/유럽 위주로 판매가 증가하면서 2025년/2026년 15%/10% 성장, 침투율도 13%까지 높아질 전망. 현대차/기아는 신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TMED-II를 기반한 하이브리드차 모델들을 전략 시장들 중심으로 투입하면서 시장 기회에 대응할 것.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에서는 '전기차 둔화 vs. 하이브리드차 성장'의 수요 변화에 맞춰 신공장인 HMGMA에서 신형 텔루라이드HEV를 시작으로 하이브리드차도 생산할 예정. 2026년 주요 시장에서 그랜저/아반떼/투싼/셀토스/니로/텔루라이드/쏘렌토 등 다수의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 하이브리드차 모델의 확대는 시장 점유율 및 ASP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미국 위주의 성장 구도 완화 :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는 2025년 8% 증가한데 이어 2026년에도 5% 증가할 전망. HMGMA 확대와 하이브리드차 모델의 추가 등이 성장 동력. 2025년에는 미국 외 판매가 1% 증가에 그치면서 미국 의존도가 심화되었지만, 2026년에는 인도/유럽 등 판매가 4% 증가하면서 완화될 것. 인도에서는 GST 인하로 시장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현대차 푸네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고 신차 투입 효과도 더해지면서 판매 증가. 유럽에서는 다수의 하이브리드차 모델들과 함께 시장 수요에 대응한 중소형 전기차 모델들(EV2/아이오닉3)을 투입하면서 성장률이 (+)로 전환될 전망

2026년 완성차 실적 전망 : 2026년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판매는 4% 증가할 것으로 전망. 미국 +5%, 한국 +1%, 유럽 +2%, 인도 +6% 등 예상. 글로벌 시장수요가 둔화되면서 시장 요인은 중립적으로 작용하지만, 현대차/기아는 미국 내 HGMMA 공장 및 하이브리드차 확대, 유럽 내 중소형 전기차 투입, 인도 내 신공장/신차 효과 등으로 시장 대비 초과 성장을 기대. 시장 인센티브 상승은 부담이지만, SUV 및 친환경차 비중 상승에 따른 믹스 효과로 높은 ASP가 지속. 2026년 합산 영업이익은 신차/신공장 기반한 물량 증가, ASP 상승, 관세율 인하 등에 힘입어 10% 증가한 24조원(영업이익률 7.7%) 예상

자동차 업종 투자 전략 : 관세율 인하 및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경쟁력에 따른 관세 충격이 시장 우려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최근 주가가 반등. P/E 5배 후반의 여전히 낮은 Valuation과 4% 후반~6% 초반까지의 양호한 배당수익률을 기록 중. 미국 에서의 성장 지속과 미국 외 지역에서의 판매 회복 등에 기반한 이익 증가가 P/E 7배까지의 주가 상승을 이끌 것. 이후 하반기 출시될 SDV Pace Car를 통해 Valuation 상단의 돌파 가능성까지 확인하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 자동차 업종의 선호 종목으로 현대차(TP 31.0만원), 현대글로비스(TP 21.0만원), 현대모비스(TP 38.0만원)를 제시

2025년 11월 25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미국 우주항공 테크, 단기 특수은행채 액티브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신규 상장 ETF(11/25)
- 1Q 미국 우주항공 테크, 1Q 단기 특수은행채 액티브

1Q 미국 우주항공 테크: 우주항공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관련 미국 상장 기업들로 구성된 테마형 패시브 ETF이다. 우주항공과 UAM은 대표적인 미래 핵심 산업이며, 본격적인 상용화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가파른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1Q 미국 우주항공 테크 ETF'는 대표 기업 12개들에 투자하는 집중형 포트폴리오의 ETF 종목이 되겠다.

우주/항공테크 분야는 원래 정부가 직접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갔던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용화 기술을 갖춘 민간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정책 지원을 등에 업고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우주산업의 경우, 희토류와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중 패권전쟁 과정에서 대표 경쟁 분야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골든돔 프로젝트'와 정책 분야의 인허가 간소화 조치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다. 마찬가지로 UAM 역시 미국 연방 항공국의 상업적 운항에 대한 형식인증과 운항인증이 임박하며 항공사와 공항 연계를 통한 초기 노선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 중이다. 신규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테마 영역이다.

'1Q 미국 우주항공 테크 ETF'는 유동성 조건(시총 10억달러/유동시총 5억달러↑, 거래대금 백만달러↑)을 충족하는 미국 상장 기업 가운데 Transport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Publishing Industries, Telecommunications 섹터로 분류되는 종목들을 편입 대상 유니버스로 한다. 이어 'Space Technology', 'Urban Air Mobility'의 키워드를 반영한 유사도 점수를 산출하여 총 12개 종목들을 추려낸다. 스코어 상위 1~2위 종목은 1등급으로 분류하여 각각 16% 비중을, 3~4위 종목(2등급)은 10%, 5~8위 종목은 8%(3등급), 남은 종목 중 유동시가총액 상위 4개 종목에 대해서는 4%(4등급)의 비중을 할당하여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상장일(11/25)을 기준으로 위성 제작부터 발사, 궤도 운용까지 통합된 우주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소형 로켓 발사체 기업 Rocket Lab과 eVTOL(전기 수직이착륙기) 기반의 UAM 선도기업 Joby Aviation이 가장 높은 비중을 할당받는 1등급 구성 종목이 되겠다. 이어 Palantir와 GE Aerospace는 2등급, Archer Aviation/AST SpaceMobile/Firefly Aerospace/Intuitive Machines가 3등급, RTX/Northrop Grumman/Honeywell/Lockheed Martin이 4등급 기준의 비중 배분을 통해 편입되어 있다.

포트폴리오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4회(3월/6월/9월/12월의 마지막 영업일)에 걸쳐 진행된다. 0.49%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패시브 ETF이다.

1Q 단기 특수은행채 액티브: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특수은행들이 발행한 잔존만기 6개월 이하의 채권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단기채권 액티브 ETF이다. 안정성과 유동성을 함께 갖추면서도 일반적인 단기 금융상품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익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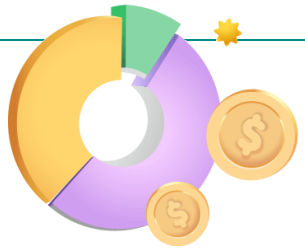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전종훈 jonghoonjeon@hanafn.com

기대 가능한 종목이 되겠다.

시장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 듀레이션을 0.25년 수준으로 조절하여 운용한다. 단기 유휴 자금, 혹은 리스크 회피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투자 수요에 적합한 파킹형 ETF 형태의 종목이다.

비교지수인 'KIS 단기 특수은행채 지수'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잔존만기 6개월 이하, 발행잔액 500억원 이상의 할인채들을 편입 대상으로 한다. 총 100여 개의 채권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의 기준으로 편입하며, 리밸런싱은 매일 진행된다. 0.01%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단기 채권형 ETF이다.

글로벌 ETF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5.11.24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전종훈 jonghoonjeon@hanafn.com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다시 쌓여갈 금리인하 명분

셧다운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인하 명분 재확인될 전망. 중장기 포트와 연말 수급, 밸류에이션 대응 포지션 구분 필요

- **글로벌 수급**: 북미 지역 ETF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ETF 시장의 확장 기조가 지속되었다. 북미 주식형 ETF 시장으로 다시 +244.6억달러가, 북미 채권형 ETF 시장에는 +95.2억달러 규모의 매수세가 순유입되었다. 주식형 ETF 시장 전반의 자금 유입 규모가 전주보다 증가하면서 글로벌 주식형 ETF 시장의 총 자금 유입액은 한 주만에 +400억달러를 상회하였다. 지난주 투자자금이 유출되었던 선진 아시아 주식형 ETF 시장으로 자금 유입 기조가 재개되었고, 신흥 아시아 주식형 ETF 시장으로도 +64.0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의 경우 연준 위원들의 정책 스탠스가 혼재되어 나타난 영향으로, 북미 채권형 ETF 시장의 자금 유입액이 다시 +100억달러를 하회하며 총 +125.4억달러의 자금 유입을 기록했다.

- **종목별 수급**: 미국 상장 ETF 종목들의 주간 자금 유출입 흐름을 살펴보면, AI 버블론과 함께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 가운데 지수형 ETF들을 중심으로 베팅에 나서는 투자자들의 포지션들이 확인되었다. 주가 변동에 따라 종목합병, 분할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Nasdaq100 3배 레버리지 ETF인 TQQQ와 2배 레버리지 ETF인 QLD, S&P500 2배 레버리지 ETF인 SSO가 자금 유입 상위 종목 리스트에 자리하였으며, S&P500 지수 추종 ETF인 VOO/IVV, S&P500 가치주 추종 ETF인 IVE, 반도체 업종 2배 레버리지 ETF인 USD, 신흥국증시 ETF IEMG, 모멘텀 스타일 ETF인 MTUM과 같은 종목들에도 최소 +10억달러 이상의 매수세가 유입되었다. 금리인하 기대의 변화 가운데 채권형 ETF 종목군에서는 BSV(1~5년 단기국채), SGOV/BIL(초단기국채), BND(US Total), VCIT(중기회사채), VFIT(중기국채)를 중심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되었다. 한편 가격 변동성 확대 영향으로 IBIT, ETHA 등의 암호화폐 현물 ETF와 금 현물 ETF GLD에서는 투자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 **ETF 포트폴리오**: Nvidia와 Target, 월마트 등의 실적을 확인하면서 3분기 어닝시즌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셧다운 여파로 경제지표 확인 일정이 뒤섞여버린 가운데, 25일(화)에 9월 소매판매와 PPI가 뒤늦게 확인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주는 추수감사절로 인해 27일(목)은 미국 금융시장의 휴장일이고, 28일(금)에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주식: 오후 1시, 채권 오후 2시)에 거래가 마감되기 때문에 리스크 회피 수요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

- 더불어 26일(수)에는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될텐데, 지난 10월 보고서 당시 확인했던 평가 수준(완만한 성장 3개, 동일 수준 5개, 소폭 둔화 4개)의 변화 여부가 최근 시장 변동 요인으로 작용했던 통화정책 전망과 연동될 전망이다. 셧다운 기간 직전의 지표들과 민간 데이터의 추세를 함께 살펴볼 경우, 경기 판단은 서서히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지표 공백(부족) 영향으로 12월 FOMC에서 동결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기자회견과 경제전망 등을 통해 시기와 무관한 완화적 스탠스가 확인될 전망이다.

- 한편 지난주 고용보고서와 Walmart의 실적발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펀더멘털 퀄리티가 훼손되면서 통화정책 명분이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농업 고용자수가 예상보다 늘어났으나, 결과적으로 실업률은 동반 상승하였고, 이 배경에는 경제활동 참가인구의 증가 흐름이 자리하고 있었다. 주요 연령층(25세~54세)과 여성 인력들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했는데, 결국 이는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추정된다. Walmart의 실적은 긍정적이었으나, 이 역시 견고한 가계 소비 여력에서 연결된 것이 아닌, 상위 소비 계층의 하향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인 만큼 소비의 퀄리티가 악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겠다.

- 결과적으로 관세의 영향권에 놓여있는 물가지표를 제외할 경우 금리인하의 명분은 증가하고 있다. 사실 물가 역시 11월 초에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뉴욕 시장 선거의 패배 이후 곧바로 식품 관련 관세 부과 조치를 해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경제지표 발표가 정상화되면서 관세 영향을 명확하게 반영한 물가 데이터들이 확인된다면, 예상보다 신속한 정책 방향의 재조정 가능성(내년 중간선거 고려)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 AI 버블론과 함께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감도 최근 시장 조정의 한 축으로 작용했던 만큼, 뒤늦게 확인되는 경제지표들과 정부의 지출 재개 기조 가운데 금리인하 기대 및 유동성 확대 흐름도 일부 회복될 전망이다. 주 후반에는 블랙 프라이데이(11/28)가 예정되어 있으나, 소비 여력의 약화 흐름을 살펴본다면 역시 눈높이를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SMH(반도체), ZAP(전력), URA/NLR(원전) 등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영역들을 중장기 우선순위에 두고, 밸류에이션 부담과 수급 왜곡 현상으로 발생하는 연말의 변동성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XLV(헬스케어), QDF(퀄리티배당), BTAL(변동성 롱숏)와 같은 ETF들을 적절히 함께 활용하는 투자전략을 제시한다.

2025년 11월 24일 | Global Macro Strategy

하나채권

[11월 금통위 프리뷰] 매파적 동결. 금리는 박스권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채권전략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 2.50%로 만장일치 동결 전망. 10월 회의 이후 성장률, 부동산, 환율 모두 동결을 지지
- 총재는 '방향의 전환' 발언과 관련해 인상은 일축하나 동결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할 것
- 인상 리스크 사라져도 시장은 당분간 동결 장기화 반영. 3년 2.8%~3.0% 박스권 예상

기준금리를 2.50%로 만장일치 동결, 3개월 내 인하 의견은 3명으로 감소 전망

한국은행은 11월 금통위에서 소수의견 없이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할 전망이다(동결 전망 유지). 3개월 내 인하 가이던스는 8월 5명, 10월 4명에 이어 3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10월 금통위 이후 (1) 성장률 회복, (2) 부동산 가격 오름세, (3) 환율 급등 등 펀더멘털과 금융안정 요인 모두 기준금리 동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1)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8월 1.6%에서 1.8% 이상으로 상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부동산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간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0.2%대로 추세적 상승이 지속됐다(11/17 KB부동산 기준). (3) 환율은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특히 팩트시트 발표 전후 상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에도 불구하고 1,470원을 상향 돌파했다. 올해 4분기 들어 주요국 중 일본을 제외하면 가장 큰 폭의 약세다 [도표 1~4].

시장의 관심은 '방향의 전환' 발언. 총재는 '동결 장기화 가능성'으로 설명할 것

지난 12일, 한은 총재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방향의 전환'을 언급했다. 이에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소멸하고,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기존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유효하다는 입장과 상충될 수 있는 표현이었다. 금주 금통위에서 해당 발언과 관련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유효하지만, 조건에 따라 동결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이전보다 커졌다'는 취지였다는 설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일축하지만, 인하 시점 역시 늦춰질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다만 인하 사이클이 유효하다고 언급하더라도 펀더멘털과 금융안정 요인이 모두 동결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다 [도표 5]. 구체적으로 성장은 GDP 갭 (-)보다 성장률이 내년에 잠재 수준까지 회복할 것이라는 부분이 강조될 것이다. 물론 성장률 회복보다 GDP 갭 부진이 더 심화된 상황으로 인상은 무리다 [도표 6]. 부동산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간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0.2%대는 한은이 기대하는 수준 (ex. 0.1%대)보다 높아 모니터링이 더 필요할 것이다. 환율과 관련해 균형 수준이 구조적으로 상승했다는 평가를 근거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변동성을 키우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기존의 금융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시장은 이를 매파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국채 금리의 큰 방향성은 하락이나, 인하 기대 재형성되기 전까지 박스권

채권시장은 기준금리가 인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금리 저항선이 강하게 작동할 전망이다(3년물 기준 3.0%). 다만 세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매파적이라면, 인하 기대가 재형성되기보다 동결 기조 장기화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국고 3년 금리는 2.8%~3.0% 범위 내 등락이 예상된다.

최근 금리 급등 후 방향성은 2013년도를 참고할 만하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추경을 통한 부양책, 반도체 호황 등에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중단된 점이 지금과 닮았다. 당시 인하 사이클이 중단되면서 국고 3년 금리가 기준금리 대비 50bp를 상회하는 구간이 나타났다 **[도표 8]**. 급등 이후 소폭 되돌림이 나타났지만 이후 장기간 박스권 흐름이 유지됐다. 그리고 2014년 인하 기대가 형성된 이후에 추세 하락으로 접어들었다.

하나채권은 2026년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와 국채 강세장을 전망하고 있다. 당장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소멸하면서 기준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국고채 금리 환경이 지속될 전망이다. 투자 시계가 연말까지 짧은 투자자는 위험 대비 기대 수익이 낮다. 반면 시계가 내년까지 긴 경우 현 금리는 매력적이며, 국고 3년 2.95%, 10년 3.30%는 적극 매수할 레벨이다.

2025년 11월 25일 | 기업분석_Update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

인니 현지 팜 기업 인수로 밸류체인 강화

BUY (유지)

목표주가(12M)	66,000원(유지)
현재주가(11.24)	51,2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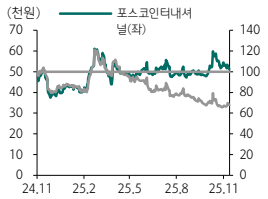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3,846.06
52주 최고/최저(원)	61,000/37,400
시가총액(십억원)	9,007.2
시가총액비중(%)	0.28
발행주식수(천주)	175,922.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501.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6.8
외국인지분율(%)	6.68
주요주주 지분율(%)	
포스코홀딩스 외 3 인	70.72
국민연금공단	6.03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32,698.7	34,102.0
영업이익(십억원)	1,141.2	1,288.5
순이익(십억원)	652.5	790.4
EPS(원)	3,645	4,402
BPS(원)	39,779	42,749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33,132.8	32,340.8	32,559.5	33,583.1
영업이익	1,163.1	1,116.9	1,100.6	1,284.8
세전이익	914.6	706.6	800.3	1,062.2
순이익	673.9	514.6	617.8	799.8
EPS	3,834	2,925	3,512	4,546
증감율	(19.79)	(23.71)	20.07	29.44
PER	16.28	13.56	14.58	11.26
PBR	1.79	1.06	1.34	1.25
EV/EBITDA	9.59	7.91	9.91	8.96
ROE	13.36	8.14	9.35	11.55
BPS	34,859	37,359	38,109	40,950
DPS	1,000	1,550	1,760	2,27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PT Sampoerna Agro 지분 65.72% 취득

11월 19일 싱가포르 자회사 AGPA를 통해 인도네시아 팜 기업 Sampoerna Agro 지분 65.72%를 약 8,300억원으로 취득했다. 잔여 소액 지분은 현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무적 공개 매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지분과 인수금액은 추가로 확대될 수 있으며 2026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된다. Sampoerna Agro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칼리만탄섬에 팜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국 팜 종자 개발/판매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이다. 추가 확보 농장 규모는 12.8만HA로 기존 파푸아 농장 포함 15만HA로 확대된다. 파푸아 PT BIA 법인과 생산 Peak 시기가 달라 연간 생산량 균등화가 가능하며 위치 상 정제법인향 원료 공급도 용이하다. 신규 농장 공급이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 농장 모두 RSPO 인증을 획득한 이점을 활용하여 향후 전개될 공급 부족 국면에서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2024년 영업이익률 22%, ROE 11%대로 연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 최대 3,000만 달러 규모의 밸류체인 확장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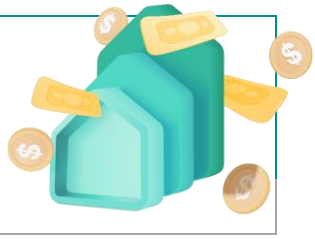
CPO 정제설비 준공으로 팜 Midstream 영역 확장

한편 같은 날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발릭파판에서는 팜유 정제법인 준공식이 개최되었다. PT.ARC(PT. AGPA Refinery Complex)는 GS칼텍스와 공동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분은 포스코인터내셔널 60%, GS칼텍스 40%으로 구성되며 2.1억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50만톤의 정제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보유한 팜 농장에서 생산된 팜 원유(CPO)를 PT.ARC에 공급하고 생산된 정제유(KPO)를 인도네시아 내수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등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GS칼텍스는 한국 시장에 바이오디젤용 정제유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기존 팜 원유 생산능력 연간 20만톤에 더해 신규 법인 인수로 40만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정제 설비향 물량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다. 잔여생산능력 10만톤 및 향후 생산성 제고로 확보 가능한 추가 물량은 상황에 따라 다른 업체로도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팜 밸류체인 완성. 진행 중인 다른 투자에서도 긍정적 소식 기대

이번 PT.SA 인수와 PT.ARC 준공으로 팜 종자 개발부터 바이오연료 원료 생산까지 연결되는 팜 밸류체인을 구축했다. 2024년 기업가치 제고계획에서 언급한 2025년~2027년 3.2조원 Capex와 유사한 규모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 중인 다른 투자 안건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팜 밸류체인 확장에 더해 미국 천연가스 업스트림 자산 등 에너지 부문에서도 향후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해볼 수 있다.

추가 공급대책 예고



건설 Weekly | 2025.11.25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1.3%p 상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과 외인이 매수, 연기금이 매도했다. 코스피 하락에 맞춰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주택주는 보합 혹은 상승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자사주 매입 소식에 크게 상승했다.
- 주요 지표로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5.9으로 재차 상승했다(+0.20%p).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0주 연속 상승했다(+0.07%), 전세가는 23주 연속 상승했다(+0.08%). 수도권 매매가는 38주 연속 상승(+0.13%), 전세가도 39주 연속 상승(+0.12%)했다. 서울 매매가격은 43주 연속 상승(+0.20%), 전세가는 40주 연속 상승(+0.15%)했다. 지방광역시와 기타지방은 모두 3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1%). 전세가격은 지방광역시 16주 연속 상승(+0.07%), 기타지방 12주 연속 상승했다(+0.05%). 광역시별로 인천(+0.04%), 부산(+0.04%), 울산(+0.12%)이 상승했으며, 대구(-0.04%), 대전(-0.03%), 광주(0.00%)는 하락했다. 서울은 상승이 재차 빨라진(+0.18%→+0.20%) 가운데, 강남3구와 용산구와 성동구의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
- 지난 한 주간 청약홈에서의 청약은 8건(경남김해, 울산, 경기김포/양평/광명/남양주, 전북순창, 경북울진)이다. 경기 광명과 김포만 흥행, 나머지 지역은 크게 미달이 발생했다. 이번 주 1순위 청약은 이번 주 1순위 청약은 9건이다(경남김해/창원, 경기성남/시흥/부천, 전북전주, 울산, 충남천안).
- 국토부는 지난 주에 연내 추가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지역들도 공급할 수 있는 곳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서리풀지구, 의정부 용현,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등 4곳의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린벨트 해제, 토지 보상, 기반 공사 등이 있어 주택 착공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2026년 건설 연간전망 자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년에는 주택주를 매수해야 할 시점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이슈 코멘트

미국 기업 & 산업 | 2025.11.25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esearch Assistant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2026년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촉진 정책 기대: AI 인프라 및 리쇼어링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지속

Dodge Construction Starts YoY +32.5%, MoM +21.1%

- AI 인프라 및 리쇼어링 등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지속한다. 우린 연간 전망을 통해 2026년에도 트럼프 정부는 AI 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중간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연간전망 2026년 트럼프와 버블을 즐기세요, 2025.11.18 발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압박을 통해 전 세계 국가 및 기업들로부터 약 9.6조 달러 규모(약 1경 4천억 원 수준)의 투자 계획을 이끌어 냈다. 주로 AI 인프라 및 리쇼어링 관련 계획이다. 미국의 FY 2025 재정적자는 1.8조 달러다. 투자 계획이 일부 시행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관세가 재정적자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의 투자 집행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민간 건설 조사업체 Dodge Momentum Networks에서 발표하는 건설 계획 지표(Dodge Momentum Index)는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등락하고 있으며(9월 경신, 10월 소폭 하락), 건설 착공 지수(Dodge Construction Starts)는 10월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 지수 모두 데이터센터가 견인하고 있다. 건설 착공 건수가 2022년 고점을 넘긴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2년엔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보조금 정책(IRA, CHIPS 등)이 있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활용한 충격 요법이 보조금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트럼프의 정책이 바이든의 정책보다 우월하다고 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내년에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해 계획된 투자가 집행되도록 전 세계 국가들과 기업들을 독려할 여지가 있다.
- 10월 건설 착공 금액은 약 1조 5,280억 달러(YoY +32.5%, MoM +21.1%)로 큰 폭 확대됐다. 세부 항목별 금액은 비주거용(Non-Residential) 5,610억 달러(YoY +21.2%, MoM +18.1%), 주거용(Residential) 3,230억 달러(YoY -13.4%, MoM -15.4%), 비 건물(Non-Building) 6,450억 달러(YoY +103.2%, MoM +59.3%) 등이다. 주거용 건설 착공은 여전히 부진하다.
- 양호한 비건물 착공을 이끈 것은 유틸리티(전력 및 가스)다. 전월 대비 384.5% 급등했다. 주요 대형 프로젝트로는 루이지애나 주의 약 151억 달러 규모 LNG 수출터미널 및 파이프라인, 텍사스 주 브라운스 빌의 약 90억 달러 규모 '리오 그란데 LNG 시설(Phase 2, Trains 4&5)', 메릴랜드 주의 프레더릭 더글러스 터널 개선 작업 약 59억 달러 등이 있다. 비 주거용 건물 착공은 사무실과 데이터센터가 45.5% 확대된 것이 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루이지애나 주 약 75억 달러 규모 메타 플랫폼의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 인디애나 주 일라이 릴리의 17억 달러 규모 의약품 생산 시설 등이 있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11/24	94,800	96,700	2.00%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B금융 (105560.KS)	11/24	120,500	120,300	-0.17%	• 경쟁은행 대비 확대되었던 PBR gap이 좁혀지면서 가격 매력 재부각 • 25년 총주주환원 규모 총 3.01조원으로 총주주환원율 약 53% 수준
NAVER (035420.KS)	11/24	262,500	261,000	-0.57%	•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정책과 '소버린 AI' 전략이 맞물려 직접적인 정책 수혜 기대 • AI 기반 쇼핑 에이전트 출시 및 네이버페이를 통한 핀테크 사업 확장 기대
삼양식품 (003230.KS)	11/24	1,380,000	1,355,000	-1.81%	• Capa 확장에 따른 수출 증가세 기조 지속 전망, 27년까지 QoQ 탑라인 성장 지속 기대 • 미국 관세에 대응하여 불닭볶음면 공급가 9% 인상, 관세 부담 완화 전망
S-Oil (010950.KS)	11/24	89,700	81,500	-9.14%	•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이수페타시스 (007660.KS)	11/24	122,100	125,100	2.46%	• 26년 다중적층 MLB 양산 공급 본격화로 Blended ASP 대폭 상승 기대 • 강한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며 MLB에도 고속/저손실/고전력 특성이 요구되고 있어
파라다이스 (034230.KS)	11/24	18,090	17,300	-4.37%	• 3Q25 Review 매출액 2,881억원(YoY +8.0%), 영업이익 395억원(YoY +9.0%) 기록 • 호텔 인수 및 소프트 오픈을 통해 가파른 이익 성장 기대
세방전지 (004490.KS)	11/24	58,900	59,700	1.36%	• 3Q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큰 폭 하락. 현재 주가 P/E 6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높아 • 4분기는 계절적 성수기로, 시장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실적 개선 기대
에스피지 (058610.KQ)	11/24	46,100	46,100	0.00%	• 대표적인 정밀기계부품인 유성/SH/SR감속기를 모두 양산 가능한 국내 독보적인 기업 • 미국 주요 로봇 메이커의 4족 보행로봇에 에스피지의 유성감속기 적용 시작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87%	-1.85%p	+59.82%	+9.4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롯데웰푸드 (280360.KS)	11/24	122,200	122,700	0.41%	•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실적 부진은 3분기를 기점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 • 4분기부터, 기저효과 및 원가 부담 완화 등 기인해 유의미한 실적 개선 전망
지역난방공사 (071320.KS)	11/17	105,200	102,400	-2.66%	• 3Q25 Review 매출액 7,582억원(YoY +29.6%), 영업이익 894억원(YoY +209.6%) 기록 • 열요금 변동, 판매량 증감, 원가 변화고 세 가지 변수 모두 양호한 방향 나타내는 중
알테오젠 (196170.KQ)	11/17	554,000	527,000	-4.87%	• 피하주사 전환에 대한 니즈가 투약 편의성 개선, 바이오시밀러 방어 등의 이유로 증가 중 • 파트너사의 지속적인 유입 전망, 공장 증설에 따른 제품 수익 증가 기대
삼성E&A (028050.KS)	11/3	25,950	25,350	-2.31%	• CIS 국가들(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젠 등)에서 가스 등의 프로젝트 참여 예정 • 26년 사우디 가스(Khafji, 20억달러), 카타르 화학(40억달러) 신규 수주 기대
SK하이닉스 (000660.KS)	10/20	465,500	520,000	11.71%	• 3Q25 Review 매출액 24.5조원(YoY +39.0%), 영업이익 11.4조원(YoY +62.0%) 기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전기 (009150.KS)	10/13	210,500	226,000	7.36%	• 컴포넌트 사업부 외에도 패키지 및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우상향 가시성 확보 • 고부가 AI 서버 및 전장향 MLCC 공급 확대로 연간 실적 호조 전망
하이브 (352820.KS)	10/13	272,500	290,000	6.42%	• BTS, 내년 봄 신보 발매를 시작으로 연중으로 대규모 투어 진행 예정 • 글로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다양한 현지 아티스트 데뷔를 준비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 기대
삼성전자 (005930.KS)	10/1	83,900	96,700	15.26%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B금융 (105560.KS)	10/1	115,500	120,300	4.16%	• 경쟁은행 대비 확대되었던 PBR gap이 좁혀지면서 가격 매력 재부각 • 25년 총주주환원 규모 총 3.01조원으로 총주주환원율 약 53% 수준
한화오션 (042660.KS)	10/1	110,300	118,800	7.71%	• 건조 Mix 개선과 원가 안정화를 통한 경상적 이익 성장 구간에 진입 •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최종 결선 진출
한국금융지주 (071050.KS)	10/1	145,000	156,200	7.72%	•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호실적 기대 • 하반기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이후 추가적인 수신 기반 확대 전망
S-Oil (010950.KS)	10/1	62,400	81,500	30.61%	•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4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8.40%	-3.87%p	+54.54%	+5.30%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AI테크 TOP10 (485540.KS)	2025.07.22	12,290	15,130	23.11%	•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I 관련 핵심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AI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Magnificent7와 AI5 기업들에 집중하는 테마 ETF • 상용화의 영역 확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버린 AI, 신제품 교체 수요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 중국 수출 규제 완화와 트럼프 정부의 AI 육성 정책 모멘텀도 긍정적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7,575	35.19%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WON 미국빌리어네어 (489290.KS)	2025.02.03	13,065	15,505	18.68%	• 미국 최상위 억만장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로 구성하는 패시브 ETF. 미국에 상장된 주요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 Tech,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금융, 필수소비재의 5개 업종이 포트폴리오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 브로드컴,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50개 우량 종목으로 구성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407830.KS)	2024.09.25	9,690	17,490	80.50%	• 대체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ETF • 전문화와 분업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는 기업들을 편입. 테슬라와 구글, 샤오미, 마이크로소프트, TSMC, 텐센트 등이 주요 구성 종목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AIQ (글로벌 AI 기술 관련 기업)	2025.09.19	49.14	52.70	7.24%	• AIQ는 AI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업 등 AI 생태계 전반의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Global X의 AI 테마 ETF. 다른 AI 테마 ETF들 대비 AI 본연의 기술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한 익스포져가 높은 종목 •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중심의 투자 모멘텀 지속 영역.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성장 기대 유효한 영역
SHLD (미국 방산 기술 주식)	2025.06.16	58.83	67.70	15.08%	• 전통 방산기업들과 더불어 AI, 증강현실/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연료시스템 등 첨단 군사 기술에 중점을 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각국 정부들이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수혜 전망. 미 국방부의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힘입어 견조한 수급 모멘텀 기대
URA (미국 우라늄 주식)	2025.06.16	38.07	56.19	47.60%	• 글로벌 우라늄 생산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치에 따라 편입하는 ETF • 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소모 증가, 탄소중립 압박,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원전 수요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 SMR(소형모듈 원자로)을 중심으로 원전 테마의 주가 모멘텀 기대 유효
QGRO (퀄리티 성장주)	2025.01.03	101.56	114.55	12.79%	• 성장성과 퀄리티를 함께 갖춘 중대형주로 구성된 ETF •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관심 증가. FOMC와 펀더멘털 퀄리티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견고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며 상대 우위 보여줄 전망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	▪ 한국 11월 소비자기대지수 (E --, 10월 109.8P)	▪ 미국 3분기 GDP P (E --, 2분기 3.4%)	▪ 한국 11월 기준금리 (E 2.50%, 10월 2.50%) ▪ 유로존 11월 경기기대지수 (E --, 10월 96.8P) ▪ 미국 10월 PCE 디플레이터 (E --, 9월)	▪	
	▪			▪ 한국은행 11월 금통위		
11.30	12.1	12.2	12.3	12.4	12.5	12.6
	▪ 한국 11월 수출/입 (E --/--, 10월 3.5%/-1.5%) ▪ 유로존 11월 HCOB 제조업 PMI F (E 49.7P, 10월 50.0P) ▪ 미국 11월 ISM 제조업지수 (E 49.0P, 10월 48.7P)	▪ 한국 11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E --/--, 10월 2.4%/2.2%) ▪ 유로존 11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P (E --/--, 10월 2.1%/2.4%)	▪ 한국 3분기 GDP P (E --, 2분기 1.7%) ▪ 미국 11월 ISM 서비스업지수 (E --, 10월 52.4P)	▪ 유로존 10월 소매판매 (E --, 9월 1.0%)	▪ 유로존 3분기 GDP F (E 1.4%, 2분기 1.5%) ▪ 미국 12월 미시건대 소비자기대지수 P (E --, 11월 51.0P)	
	▪ BOJ 우에다 총재 연설			▪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